

Korea Venture Festival

2005

비즈니스 프로그램

벤처 교류의 장, 비즈니스 프로그램

해외기업 · 대기업 초청 상담회,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벤처기업과 해외기업 및 대기업의 비즈니스 상담회가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련됐다. 550명 규모의 그랜드볼룸 내에 나란히 자리한 해외기업과 대기업의 상담테이블에는 벤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외기업초청 상담회에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태국, 미국 등 21개 기업이 초청되어 72개 국내 벤처기업에게 해외 진출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 씨아이에스테크놀로지의 이순영 해외사업팀 차장은 아르헨티나의 BizDragon사와 상담을 마친 뒤 “방송사 솔루션에 해당하는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향후 정보 교환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기업초청 상담회는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KT, LG상사, LG전자, LG화학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34개 벤처기업과 상담 자리를 가졌다. LG전자와 상담을 마친 쇼테크의 곽효원 대리는 “당사의 마이링크 상품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LG전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만족한다”고 밝혔다. 상담시간은 30분씩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벤처기업들은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여성기업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여성기업과 투자자 간의 협력체제 구축



여성벤처기업인의 투자기회 확대 및 제휴기회 제공을 위한 ‘제6회 여성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여성벤처기업인들이 투자자와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전문투자유치의 기회를 얻도록 계획된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기술, 사업성, 내부수행능력, 시장 매력도, 수익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이 벤처캐피탈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상담 및 업무제휴를 맺도록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청 주최, 한국여성벤처협회 주관, 한국경제신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송해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마이프리콘시, 남영자동차공업, 다큐코리아, 아이들세상 순으로 IR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투자환경 분석 및 사례에서 한화기술금융의 인은식 팀장은 투자자와 기업의 갈등 요인을 밝히고, 상호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각 기업의 IR이 끝난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